

2023 한국언어문화전공 학회지

얼갈울터

-제 26호

한울국문

2023 한국언어문화전공 학회지

얼갈울터

제26호

얼갈울터란?

얼: 정신

갈: 연구, 연마 등 갈고 닦는 것

울: 우리

터: 곳, 마당, 상명교정

얼갈울터는 우리의 정신과 갈고 닦은 것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마당을 뜻합니다.

목차

▶ 전공주임 교수님 인사말	p. 4
▶ 학회장 인사말	p. 5
▶ 한국어언어문화전공이란	p. 6
▶ 한국어언어문화전공 교수님 소개	p. 11
▶ 2023 소모임 활동 보고	p. 20
▶ 상세내용	
▶ 2023 커뮤니케이션팀 활동 보고	p. 29
▶ 2023 우수 과제작	p. 34
▶ 2023 단풍 백일장 수상작	p. 44
▶ 김동욱 장학금 프로젝트 결과물	p. 52
▶ 상세내용	
▶ 졸업생 대표 소감문	p. 59
▶ 학생회 소감문	p. 62
▶ 한 해 마무리 사진	p. 74

전공주임 교수님 인사말

안녕하세요.

한국언어문화전공 전공주임 이희영입니다.

2023년도는 코로나 시기에 시행하지 못했던 전공 행사를 진행하면서 역동적으로 보낸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학술답사를 진행하였고, 대외적으로는 “KF공공외교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회에서는 해오름식을 시작으로 짝선배·짝후배, 월드빌리지, 학술답사를 진행하며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전공에서는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구현정선생님께서 2023년 8월 31일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92년 전공에 부임하셨고, 31년 동안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전공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얼갈울터는 한국언어문화전공의 학술지로서, 전공에서 일어난 한 해의 모든 일을 한 눈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 전공 학생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얼갈울터의 제작을 통하여, 우리 전공이 ‘올해도 무사히 한 해를 잘 지냈구나.’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 한국언어문화전공은 1학기 개강총회를 시작으로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전공 학생회는 정윤지 학생회장을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강총회·학술답사·단풍백일장·월드빌리지·시험기간 간식행사·짝선배짝후배 등의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커뮤니케이션팀 학생들은 졸업생 초청 취업특강·해외학자 초청특강·언어문화교류회 등에서 사회를 맡고 영상 제작을 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훌륭하게 맡은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팀은 전공 소식지 “도담도담” 2호를 제작하여 한국언어문화전공 졸업생을 포함한 구성원들에게 전공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전공 학생들은 해외 대학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 학부생들과 언어문화교류를 통하여 한국문화 및 한국어를 전달하는 방법을 익히고,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대만국립정치대학교·파키스탄국립외국어대학교·이스탄불국립대학교와 언어문화교류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폴란드 브로츠와프대학교·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와 언어문화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 전공 학부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공 선생님들의 응원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얼갈울터를 제작하고 학술제를 진행하는 지금, ‘결실(結實)’이라는 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 토끼의 해)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 갑진년(癸卯年 : 용의 해)에도 24학번 신입생을 맞이하면서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호 “얼갈울터” 제작과 편집에 참여한 정윤지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국언어문화전공 전공주임 이희영 드림.

학회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한국어문화전공 제32대 학회장 정윤지입니다.

벌써 첫눈이 내리고 1년이 지났네요. 이번 학술제를 준비하면서 작년 학술제에서 제가 학회장에 당선되고 떨면서 차기 학회장 인사말을 준비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차기 학회장 인사말을 준비하는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벌써 1년이 지나 학회장으로써 마지막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2년간 비대면으로 학교생활을 하다가 3학년 1년 동안 했던 대면 학교생활이 인상 깊었고 이에 용기를 얻어 학회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 같습니다. 대면 학교생활의 기반을 만들어주신 작년 학생회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행사에 대한 것들을 기반으로 이번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 뵈게 되었습니다. 처음 학회장이 되었을 때 응원해 주시고 학과 행사 관련해서 매번 도움을 주시고 늘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던 이희영 선생님, 안식년이셔서 2학기 때 처음 뵈는데도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갑작스럽게 백일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흔쾌히 진행해 주신 김한식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또, 찾아볼 때마다 웃으면서 반겨주시고 늘 따뜻한 문장으로 답변을 주시고 고생이 많다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던 전정미 선생님, 바쁘셨을 텐데 학술답사 때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며 문학과 설명을 맡아 학술답사를 빛내주신 김지윤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응원을 한몸에 받고 도움을 받으며 1년 동안 학회장 역할을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을 텐데도 현재까지의 경험으로 학과 행사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성가은 조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실수를 늘 올바르게 잡아주신 조교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울국문’ 학생회에게도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많이 믿고 의지하며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 자기가 하겠다고 말하며 행사 내내 같이 고생하던 부학회장 미래 오빠, 감사는 내가 맡아서 다 하겠다며 자기한테 맡기라고 하던 총무부장 남훈 오빠,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뒤에서 묵묵히 부원들과 함께 진행해 준 기획부장 승주 오빠, 포스터, 카드 뉴스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하루 만에 부원들과 함께 진행해 주던 홍보부장 정우. 부장들이 맡은 일이 더 많았을 텐데도 불평 없이 묵묵하게 진행해 준 덕분에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행사 때마다 예산 짜야 할 일이 있으면 같이 회의하던 동찬이, 1학년이라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예산 짜고 학술답사 이끌어준 솔은이. 총무부원들에게 고맙습니다. 단독방에서 부탁하면 늘 먼저 답장하고 자기 시간 있다고 말하면서 학생회 일정에 참여해 준 형경이, 총학생회 일도 너무 바빴을 텐데 학과 학생회 일까지 열심히 해준 산하, 솔은이랑 같은 1학년이라 힘들었을 텐데 시키는 일 열심히 도와준 유빈이까지 기획부원들에게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관리, 카드 뉴스 만들기 등 홍보에 열정적으로 힘써준 민우, 촉박한 시간으로 부탁했는데도 포스터를 2~3개씩 만들어서 골라서 사용하라고 보내준 능력자 서연이까지 홍보부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큼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부탁한 일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좋은 리더,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한울국문’ 학생회에게 배운 점이 많아 제가 성장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국어문화전공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가겠지만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이 자리에서 빌겠습니다. 한국어문화전공 행사에 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989. 10.	교육부로부터 국어국문학과(정원40) 설립 인가
1990. 03.	제1회 40명 입학
1991. 03.	김동욱 교수 학과장 보임
1992. 03.	구현정, 고희진, 최상은 교수 부임
1992. 11.	제1회 학술연구 발표회 "젊은이들의 언어사용 실태 연구"
1993. 03.	구현정 교수 학과장 보임
1993. 09.	제1회 학술답사 "호남문화권의 국문학 유적지"
1993. 10.	'상명어문학회' 창립
1994. 02.	제1회 35명 졸업
1994. 03.	김미형 교수 부임, 김동욱 교수 교무처장 보임
1995. 02.	국어국문학과 학회지 <얼갈울터> 창간호 발간
1996. 03.	고형진 교수 학보사 부주간 보임
1997. 03.	최상은 교수 학과장 보임
1998. 03.	김동욱 교수 어문대 학장 보임, 고희진 교수 어문학연구소장 보임
1999. 01.	김동욱 교수 천안캠퍼스 부총장 보임, 최상은 교수 교무처장 보임
1999. 03.	학부제 실시. 동양어문학부 3개 전공(국문, 일문, 중문) 150명 입학, 김미형 교수 국어국문학 전공 주임 교수 보임
1999. 04.	고형진 교수 신문 . 방송국장 보임
2000. 12.	최상은 교수 학생 복지처장 보임
2001. 03.	구현정 교수 국어국문학전공 주임 교수 보임
2001. 09.	고형진 교수 미국버클리 대학교 객원 교수로 해외연수
2003. 01.	고형진 교수 학생복지처장 보임
2003. 03.	학과제 시행, 한국어문학과로 과명 변경, 한국어문학과 50명 입학
2004. 08.	구현정 교수 교무처장 보임
2005. 02.	김한식 교수 부임

2006. 03.	최상은 교수 어문대 학장 보임, 김한식 교수 학과장 보임
2006. 03.	전정미 교수 부임
2008. 04.	김동욱 교수 도남국문학상 수상
2009. 03.	김미형 교수 학과장 보임
2010. 02.	전정미 교수 학보사 주간교수 보임
2011. 01.	김미형 교수 교무처장 보임
2011. 03.	김종훈 교수 부임
2011. 09.	최상은 교수 평생교육원장 보임
2012. 03.	김종훈 교수 학과장 보임
2013. 12.	최상은 교수 대학원장 보임
2014. 02.	전정미 교수 학과장 보임
2015. 08.	김미형 교수 학생처장 보임
2016. 02.	김한식 교수 학과장 보임
2017. 02.	전정미 교수 글로벌인문학부대학 학장 보임
2017. 03.	대학 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언어문화학과로 과명 변경
2018. 02.	최상은 교수 학과장 보임
2019. 07.	전정미 교수 학생경력개발처장 보임
2020. 02.	구현정 교수 학과장 보임
2020. 03.	대학 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언어문화전공으로 과명 변경
2020. 03.	이희영 교수 부임
2021. 08.	이희영 교수 학과장 보임
2022. 09.	김지윤 교수 부임
2023. 02.	김미형 교수 교학부총장 보임

한국언어문화전공이란?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은 '국어국문학과'라는 이름으로 1989년 천안캠퍼스에 창설되어 2003년에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어문학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2017년 학교의 구조개혁 방향에 따라 '한국언어문화학과'로, 2020년 '한국언어문화전공'으로 재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어 교육,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등의 세부 영역을 심도 있게 학습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인의 주체성과 인간적 품성을 갖춘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인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학, 한국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한국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하고, 이를 널리 교육하는 일은 한국언어문화전공이 맡은 시대적 사명이다.

한 나라의 말과 글, 문화를 익히며, 생활 속에 적용하는 훈련은 개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높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다른 언어나 문화를 학습하는 데에도 밑바탕이 될 것이다.

어문학을 바탕으로 인문학 일반이 만나는 지점에 한국 언어문화가 있다. 한국언어문화전공의 교육과 정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의 기본이 되는 지식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어서 이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자뿐 아니라, 기자, 편집자, 출판인, 작가, 공무원, 회사원, 문화콘텐츠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학과 슬로건]

한국언어문화전공은 한국인의 주체성과 인간적 품성을 갖춘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인 양성과

한국 언어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실용

성, 창의성, 논리성을 특히 강조하는 전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국 언어문화의 내재적 발전은

물론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첨단정보 기술사회에 한국 언어문화콘텐츠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실용적

전문인을 양성한다.

[학과 소개]

한국어문학과 한국문화에 나타난 한민족의 사상 감정과 미의식을 탐구하고, 한국어의 특성과 한

국어교육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여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자

질을 갖추며, 한국의 언어문화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한국 언어문화의 전문

인이 되게 한다.

● 한국언어문화전공 교육과정

학년/학기	전공교과목
1/1	한국문학의이해, 한국어교육개론
1/2	한국어학의이해, 한국의전통문화, 한국현대시의이해
2/1	한국어발음교육론, 고전명작읽기와감상, 한국민속학, 한국현대문화비평, 한국어표현교육론
2/2	한국어문법론, 한국현대소설의이해, 한국고전서사와문화콘텐츠, 언어학개론, 사회언어학
3/1	한국문학사,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현대시와사회, 한국고전문학스토리텔링(PBL), 한국어어휘교육론
3/2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이해교육론, 한국문화과세계문화, 응용언어학
4/1	한국어교재론, 한국시가문화의이해, 현대한국사회, 인턴십(한국어문), 한국어교육실습
4/2	문예창작실습,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어문규범

● 한국언어문화전공 전공 CDR

SM-CDR이란? 학부(과)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진로를 선택하여 희망하는 직업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별 교육과정을 학년별로 구성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이에 관해 설계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로드맵

● SM-CDR 브랜드 네임 '나비오름'

가. Navigation처럼 SM-CDR이 제시한 목표와 가이드라인을 따름

나. 나비처럼 미래를 향해 훨훨 날아오름

다. 나비효과처럼 학생들의 작은 날갯짓이 상명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날갯짓으로 비상하기를 기원함

이수 조건 : CDR별 교육과정 최소 30학점 이상을 이수(전공심화교과목 1개 이상 포함)

특기 사항 : 2017학번부터 학생 1인당 1개 이상의 CDR을 신청하되, 졸업요건에는 포함하지 않음. CDR 이수 시 성적증명서에 SM-CDR : PASS 표기

1. 대학과 사회수요에 맞춘 한국어, 한국문학 전문가(연구자) 양성

대학과 사회수요에 맞춘 전문가 양성 CDR은 한국언어문화학과 졸업 후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원 합격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나아가 대학원 졸업 후 기대하는 분야의 취업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재학 중 준비해야 할 학점 이수율과 교과 외 활동에 대해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학원 진학의 방향은 크게 전공 심화 학습을 위한 일반 대학원 진학과 교직 진출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대학원 진학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문화콘텐츠 관련학과, 문예창작학과, 언론정보학과, 문헌정보학과 등 다양한 학과로의 진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고학력 사회가 되면서 학부를 인문학, 한국학 등 토대 문학을 다지는 시기로 잡고 대학원을 전문적 직업 준비 과정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언어문화학과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춘 셈이 된다. 현대 사회의 매우 많은 직종이 한국언어문화학과에서 갈고 닦는 어문 관련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후 어떤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가에 따라 재학 중 이수해야 할 교과목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교과 외 활동을 통한 관련 능력 향상을 기할 수 있으므로 CDR을 잘 참고하여 4년간의 대학 생활에 임하도록 한다.

2. 글로벌 시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 양성

글로벌 시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 CDR은 한국언어문화전공 내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과정을 두어, 정상적으로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하는 데 있다. 학생들은 학과 안에 개설된 지정 교과목을 이수하고 국립국어원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 여기서 한국어교원이란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사람은 이르며,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다.

3. 대중문화 시대 미디어 맞춤형 창작 인재 양성

많은 한국언어문화전공 졸업생이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작가나 시인으로 등단하는 것은 물론 구성작가나 시나리오 작가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 대중문화 시대 미디어 맞춤형 창작 CDR은 작가 및 시인으로 등단하고자 하는 학생들, 구성 작가 및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4. 문화산업 시대의 문화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문화산업 시대의 문화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CDR은 매우 다양한 한국언어문화전공 관련 취업 영역을 안내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희망하는 취업 분야에 진입하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취업 영역을 크게 전공 연계 분야와 일반 분야로의 취업으로 나눌 수있다. 그 구분에 따라 대학 시절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다르므로 자신의 인생 디자인을 되도록 저학년 때 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잘하는가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분석이다. 결정 과정에서 부모님과 학과 교수님, 그리고 선배의 조언을 듣고 상담하는것이 좋다. 다음에 소개되는 직업군을 살펴보고, 본인이 더 많은 정보를 사냥하면서 졸업 후 무슨직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 한국어 교원 양성 교과 과정

1.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개요

- 한국어 교원자격제도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시행 2005. 07. 28.)

- 한국어 교원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

- 법정 요건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 자격 요건과 기준 명시

2. 자격의 등급 및 기준

높은 순으로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됨

1급 : 2급 자격 취득 후 승급

2급 : 3급 자격 취득 후 승급, 학위과정(주전공/복수전공) 이수

3급 : 학위과정(부전공),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 통과자

- 학위 취득자,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 모두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함
외국 국적자의 경우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증명서 필요(조건: TOPIK 6급)

3.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 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 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4. 취득 필수학점과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다섯 개 영역을 두고 영역별 최소 이수학점을 지정함

영역별 최소 이수학점 미달 시 자격 미달

총 이수학점으로 영역별 학점 이수 불인정

영역	취득학점(총개설학점)		과목명	개설학기
	전공/다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6학점(9학점)	3학점 (9학점)	한국어학의 이해	1학년 2학기
			한국어문법론	2학년 2학기
			한국어어문규범	4학년 2학기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9학점)	3학점 (9학점)	언어학개론	2학년 2학기
			사회언어학	2학년 2학기
			응용언어학	3학년 2학기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 (27학점)	9학점 (27학점)	한국어교육개론	1학년 1학기
			한국어발음교육론	2학년 1학기
			한국어표현교육론	2학년 1학기
			한국어어휘교육론	3학년 1학기
			한국어문법교육론	3학년 1학기
			한국어한자교육론	3학년 2학기
			한국어이해교육론	3학년 2학기
			한국어교재론	4학년 1학기
한국문화교육론	4학년 2학기			
4. 한국문화	6학점(9학점)	3학점 (9학점)	한국문학의이해	1학년 1학기
			한국의전통문화	1학년 2학기
			한국현대사의이해	1학년 2학기
			한국민속학	2학년 1학기
			한국현대소설의이해	2학년 2학기
			한국고전서사와문학콘텐츠	2학년 2학기
			한국문학사	3학년 1학기
			한국시가문학의이해	4학년 1학기
현대한국사회	4학년 1학기			
5. 한국어 교육실습	3학점(3학점)		한국어교육실습	4학년 1학기

한국언어문화전공 교수님 소개

- 김한식 선생님



- 연구실 : 송백관(E동) 315호
- E-mail : hankim@smu.ac.kr

- 학력

박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세부전공 : 현대문학(현대소설)), 200008
석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세부전공 : 현대문학(현대소설)), 199408
학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세부전공 : 국문학), 199002

- 경력 및 직책

상명대학교 강사 역임
고려대학교 강사 역임
현재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

저서

- 현대문학사와 민족이라는 이념, 소명출판, 2009.
- 문학의 해부, 미다스북스, 2009.
- 현대시의 운명, 역락, 2006.
- 식민지 근대의 내면과 매체표상(공저), 깊은샘, 2006.
- 현대소설의 이론, 박이정, 2003.
- 소설과 일상성, 월인, 2002.
- 현대문학의 경험과 형상, 새미, 2002.
- 한국현대소설의 내용과 형식 연구, 깊은샘, 2000.

논문

- 이청준 소설의 서사 전략, 남도문학연구 , 2009.
- 소설과 기억의 정치학, 비평문학 , 2009.
- 사실복원의 의지와 이념에 대한 불만, 우리어문연구 , 2008.
- 해방 후 순수문단과 세계문학의 개념 민족문화연구 , 2008.
- 여류문인 모운숙과 왜곡된 여성, 겨레문학연구 , 2008.
- 백민 과 민족문학, 상허학보 , 2007.
- 잡지의 서적광고와 내면화된 근대, 상허학보 , 2006.
- 김동리 순수문학의 세 층위, 상허학보 , 2005.
- 체험의 형식과 관찰의 문체, 우리어문연구 , 2005.

● 전정미 교수님



- 연구실 : 송백관(E동) 312호
- E-mail : meejeon@smu.ac.kr

학력

- 박사, 상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세부전공 : 화용통사론), 199902
- 석사, 상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세부전공 : 통사화용론), 199302
- 학사,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199102

경력 및 직책

- 처장, 상명대학교 학생경력개발처, (2019.07~2021.08)
- 교수,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 (2019.03~)
- 정보이사, 한국사회언어학회, (2019.01~2020.12)
- 정보이사, 한말연구학회, (2017.07~)
- 학장, 상명대학교 글로벌인문학부대학, (2017.02~2019.06)
- 기획이사, 한국화법학회, (2017.01~)
- 주간 교수, 상명대학교 학보사, (2012.03~2016.01)
- 전임강사, 상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6.03~2008.02)

• 논문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상호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연구, 201902

텔레비전 대학생 토론 담화에 나타난 비동의 표현 연구, 우리말연구, 201901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성취도 관련 요인 분석, 한말연구, 201712

대학 교양 말하기 교육에서의 유머 교육 연구, 교양교육연구, 201712

A Study on Employment Culture in South Korea: Based on Hofstede's Cultural Dimension Theory, Culture, Biography & Lifelong Learning, 201708

남북한 사과 화행 사용 양상 연구, 한말연구, 201703

응답어 '그래'의 기능, 우리말글, 201612

TV 토론 텍스트에 나타난 의문 표현의 설득 전략 연구, 겨레어문학, 201612

부부 대화 실태 조사 연구, 한말연구, 201603

설득 텍스트에 나타난 공손 전략 연구, 한말연구, 201509

• 저서

유머학 개론, 박이정, 20190125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듣기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화법 전략, 교육과학사, 20150625

사회언어학 사전, 소통, 201201

화법의 이론과 실제, 박이정, 200701

● **이희영 교수님**



- 연구실 : 송백관(E동) 322호
- E-mail : lhy6082@smu.ac.kr

학력

- 박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세부전공 : 한문학(한시)), 201608
- 석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세부전공 : 한문학(한시)), 200902
- 학사, 상명대학교(천안캠퍼스) 국어국문학과 (세부전공 : 국문학), 200002

경력 및 직책

- 지역이사,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22.03~)
- 출제/선정검토위원, (사)한자교육진흥회, (2022.01~)
- 지역이사, 한국시가문화학회, (2021.09~)
- 편집위원, 두류한국어교육학회, (2021.05~)
- 조교수, 상명대학교, (2020.03~)
- 편집위원,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동아한학연구 , (2020.01~2021.12)
-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9.04~2020.02)
- 시간강사, 고려대학교 , (2019.03~2020.02)
-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BK21+한국어문학사업단, (2017.03~2019.02)
- 연구원, 한국고전세계화연구소, (2016.03~2017.01)
- 연구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5.04~2016.02)

- 시간강사, 공주대학교, (2015.03~2015.08)
- 시간강사, 상명대학교, (2011.03~2020.02)

논문

- 李奎報 排律研究(3) : 致仕 以後를 中心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54), 202108
- 포은의 명나라 사행 시기 역사제재 한시에 관한 일고찰, 포은학연구, 202010
- 이규보 『개원천보영사시』에서 보이는 ‘亂案’의 기법과 ‘新意’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고전과 해석, 202008
- 李奎報 排律研究(2) : 官人活動 時期를 中心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48), 202002
- 보한집을 통해서 본 李奎報 漢詩의 新意와 逸氣의 具現樣相에 대하여, 동양고전연구(74), 201903
- 李奎報 排律 研究(1) : 求官活動 時期를 中心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40), 201802
- 이규보 「開元天寶詠史詩」의 紀事 選擇과 構成에 관하여, 한문학논집(48), 201710
- 3인 공저, 북한산 이계구곡(耳溪九曲)의 위치비정과 집경(集景)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35(3), 201709
- 仕宦期 李奎報 漢詩에 나타난 內面意識 研究, 한자한문연구(11), 201608
- 강남 유람이후 이규보 한시 연구: 내면의식의 변모양상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32), 201602
- 이규보 『江南集』 연구, 우리어문연구(53), 201509
- 李奎報의 강남 유람 이전 한시 연구 : 내면의식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59), 201506
- 遁村 李集 한시의 일 양상: 隱逸생활과 관련하여, Journal of korean Culture(16), 201102
- 한문학 2009년 연구동향, 고전과 해석(9), 201010

저서

- 이규보 시선, 학자원, 20220222
- 6인공저, 사고와표현, 역락, 20200214

- 김지윤 교수님



- 연구실: 송백관(E동) 223호
- 이메일: vantablack@smu.ac.kr

담당 전공교과목

- 한국 현대시의 이해, 한국 현대소설의 이해,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문예창작실습, 교양과 인성

학력

- 연세대학교 인문학부(영문학, 국문학 이중전공) 졸업, 문학사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문학 석사
-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문학 박사

경력 및 직책

- 현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연구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경희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목원대학교, 장안대학교 강사
- 계간 『청색종이』 편집위원
- 『요즘비평포럼』 기획위원
- 한국시학회 편집위원
- 구보학회 편집위원
- 한국여성문학학회 편집이사
- 사단법인 신동엽기념사업회 이사
- 사단법인 글로컬여성네트워크 이사
- 한국시인협회 정회원
- 한국작가회의 정회원
-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선정
- 한국연구재단 시간강사 지원사업 선정
- 서울학연구소 서울학연구지원 선정

수상

- 2006년 문학사상 신인상 시 부문 수상 (시인 등단)
- 2012년 시와 시학상 젊은 시인상 부문 수상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
- 201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평론 부문 당선 (문학평론가 등단)
- 2018년 성신여자대학교 우수강사 표창장 수여

2023 소모임 활동보고

국어샘

1. 인사말, 소모임 소개

안녕하세요. 국어샘 소모임장 20학번 정윤지입니다. 국어샘은 국어교사를 희망하는 학생, 국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활동하는 소모임입니다. 국어교육만이 아니라 한국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소모임입니다.

2. 1년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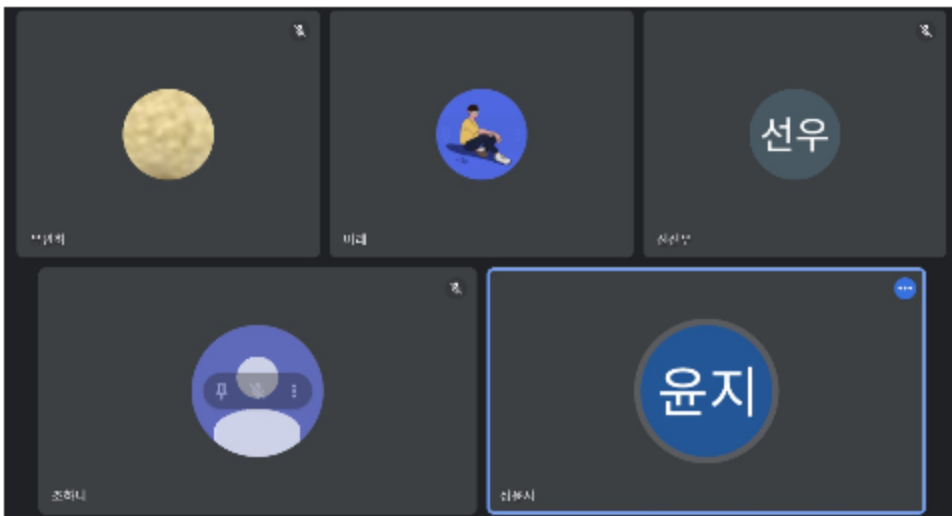
이번 학기에는 소모임 부원들과 대화를 많이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활동하였으며 초반에는 선후배 간 친해지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도 하고 가까워져야 소모임 활동을 하기 편할 거 같아 초반에는 알아가기 위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후 현재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것들, 진행하고 있는 과제나 수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서로에게 조언과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과제와 수업에 대한 꿀팁을 알려주었으며 한국사 시험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전에 응시했던 학우가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학술제 이후에도 소모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소모임 부원들과의 마지막 인사,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소감

처음 국어샘 소모임을 맡게 되었을 때는 소모임 부원들과 활동이 많이 없던 국어샘 소모임의 활동을 늘려가자는 마음가짐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어샘'이라는 소모임의 인원수도 적었고 소모임장인 제가 학회장과 국어샘 소모임장을 동시에 맡아 국어샘 소모임에 소홀했던 부분도 있었던 거 같아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소모임 부원들이 잘 따라주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국어샘이라는 소모임에서 1년간에 활동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학년에 국어샘 소모임장이라는 경험을 쌓고 졸업하여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어샘

2023 소모임 활동보고



글가웃

1. 인사말, 소모임 소개

안녕하세요, 글가웃 소모임장 20학번 채형경입니다. 글가웃은 책을 읽고 토론을 하거나 견해를 나누고, 독후감을 쓰는 등 글에 관한 모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모임입니다.

2. 1년간 활동

저희는 고학번인 20학번과 신입생인 23학번이 주로 이루는 소모임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친목도모 위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 책 한 권을 선정하여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해 토론을 하거나 독후감을 쓰는 활동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3. 소감

먼저 많이 부족한 소모임장이었던 저를 따라와준 글가웃 부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1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부원들이 바빴기 때문에 아직 하지 못한 활동이 많아서 아쉽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소모임 덕분에 좋은 인연들을 얻게 되어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글가웃 학우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올해 하려고 계획했지만 하지 못했던 행사들을 내년에는 모두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하고 가족같은 소모임을 원하신다면 글가웃에 지원해주세요!



해울

1. 인사말, 소모임 소개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저는 소모임 해울의 부장을 맡고 있는 한국언어문화전공 22학번 박보미입니다. 저희 해울은 '순수문학'을 사랑하는 학우들이 모인 그룹으로, 직접 글을 쓰고, 그 글에 대해 서로 피드백을 나누며 올바른 문학을 창작하고 이해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있는 소모임입니다.

2. 1년간 활동

3월~4월: 해울 신입 부원 모집 및 23년도 재정비

5월: 첫 대면 모임과 신입 부원 소개

6월: 방학을 활용하여 새로운 글감 찾기 및 비대면 모임

7월: 글감 '꽃'에 대한 글 작성 및 피드백, 2023 KF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 참여

8월: 글감 '미래'에 대한 글 작성 및 피드백, <천안沁거리> 전시회 관람

9월: 글감 '온순하다'에 대한 글 작성 및 피드백

10월: 글감 '비'에 대한 글 작성 및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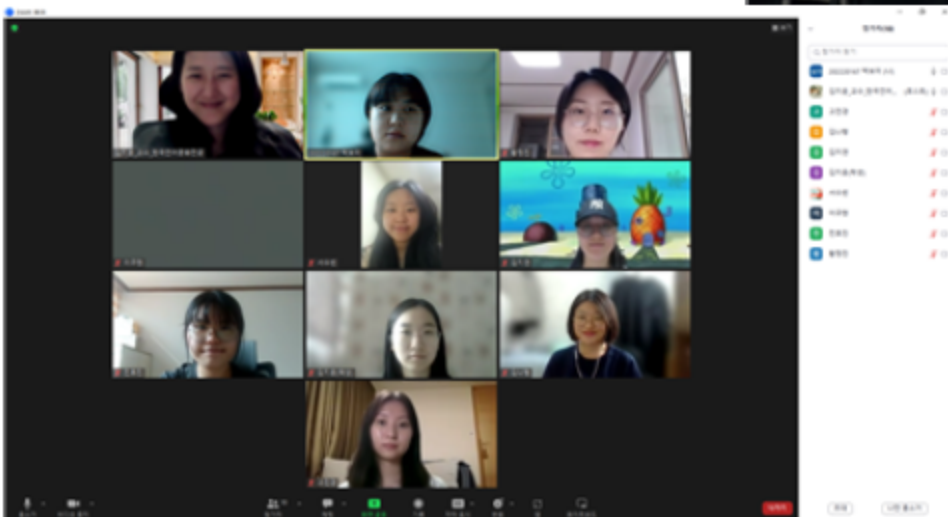
11월~12월: 지금까지의 글들이 담긴 문집 제작

3. 소감

소모임 '해울'의 부원이 되어 매달 부원들과 함께 글감을 찾고, 이에 대해 직접 글을 작성하며, '창작'이라는 것이 글을 쓰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인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제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만 부원들 모두에게서 각자의 감성이 담긴 새로운 글들이 창작되어 나오는 것이 신기하다고 느꼈고, 이것이 바로 문학이 개인에게 선물해 주는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2023년, 해울 덕에 문학을 사랑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해울

<활동 사진>



한자소굴

1. 인사말, 소모임 소개

안녕하세요 한자소굴 소모임장 전효진입니다. 저희 한자소굴은 일상 속에서 접하는 한자들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소모임입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한자를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함께하는 학우들이 다 같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 1년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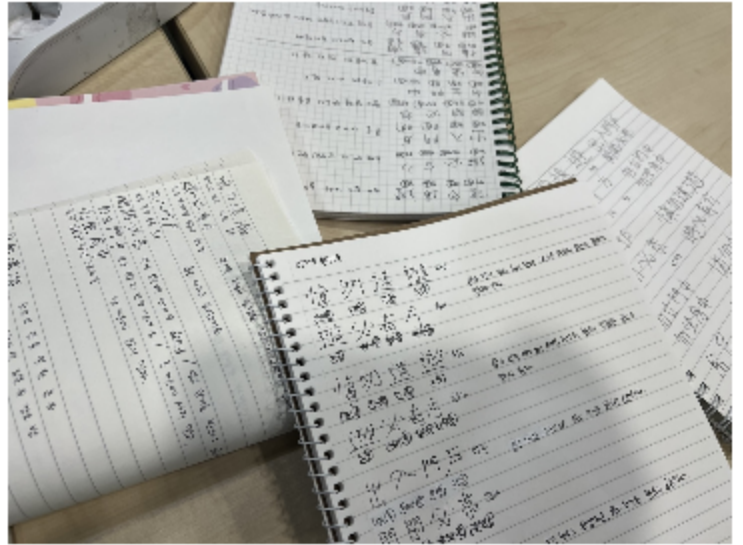
올해 한자소굴은 부원들의 시간에 맞게 활동 일자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대면 모임을 가졌습니다. 주로 사자소학 책을 읽으며 자유롭게 한자를 따라 쓰고 의미를 파악하며 한자를 공부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활동 전후로는 부원들 간의 일상을 공유하는 소소한 시간들을 통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학술제 이후로는 올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하며 부원들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소감

이번 2023년의 한자 소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자소굴 소모임장을 맡게 되었을 때 제가 과연 소모임을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한자 소굴에서 보냈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었기에, 이번에 함께하는 부원분들께도 그런 추억들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잘 진행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마음과 달리 바쁜 일정으로 인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소모임에 참여해 준 부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소모임을 위해 노력해주신 이희영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비록 졸업을 하지만 내년에도 부원분들이 함께 즐겁게 활동을 이어 나가며 다양한 추억을 쌓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한자소굴은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니 다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자소굴

2023 소모임 활동보고



말글지킴이

1. 인사말, 소모임 소개

안녕하세요 말글지킴이 소모임장 20학번 서수빈입니다.

'말글'을 지키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자리로, 지키려면 알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말글' 중에서도 중요한 '맞춤법'에 대한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갔습니다.

2. 1년간 활동

순우리말 카테고리에 따라 조사해 오기

조사 내용 목록화 및 토론

맞춤법 교재 <(쓰면서도 헛갈리는) SNS 맞춤법> 선정

SNS의 잘못된 사례(실제 사례)와 연결 지어 고쳐보기

조사 내용 목록화 및 토론

3. 소감




생각보다 한글을 잘 지켜서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안다고 자부했던 맞춤법을 틀리고, 틀린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쁜 우리말 대신, 과거처럼 한자를 빌려오거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등, 여전히 '말글'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해 안타깝기만 했는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말글'의 보존을 자처하여, 활동해 나감에 있어서 작은 혁명을 일으킨 것 같아서, 작은 혁명가가 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2023 커뮤니케이션팀 활동보고

한국언어문화전공 유튜브

연번	썸네일	설명	
1		2023. 5. 23.	
		국문인으로서 "채용담당자"로 가는 길 졸특 짧게 보기 09학번 김수형 선배님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일진그룹 채용담당자이신 09학번 김수형 선배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취업 관련 꿀팁들	
2		2023. 5. 28.	
		선배가 들려주는 사회 스토리 졸특 짧게 보기 11학번 박종욱 선배님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비엠스마일 제휴사업팀장님이신 11학번 박종욱 선배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실제 영업 현장 이야기와 취업 관련 꿀팁들	
3		2023. 6. 2.	
		없었는데, 있었습니다 졸특 짧게 보기 02학번 홍광선 선배님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메조미디어 CD (크리에이티브팀 팀장)이신 02학번 홍광선 선배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실제 광고 회사 이야기와 자소서 관련 꿀팁들	
4		2023. 7. 26.	
		2023 학술 답사 브이로그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학술 답사에 참석하지 못한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한 2023 한국언어문화전공 학술 답사 브이로그	

특강

일	포스터	활동 내역
12차	 <p>제목 : 국문인으로서 채용담당자(채용담당자)로 가는 길</p> <p>강연 : 김수형 선배님 (한국언어문화전공 09학번)</p>	2023.5. 23.
		<p>국문인으로서 "채용담당자"로 가는 길 강연자: 김수형 선배님 (한국언어문화전공 09학번)</p> <p>설문조사진행(사전조사), 홍보 포스터 제작, 사회, 오프라인 현장 스텝 지원</p>
13차	 <p>제목 : 선배가 들려주는 사회 Story(사회) 탐구활동</p> <p>강연 : 박종욱 선배님 (한국언어문화전공 11학번)</p>	2023.5. 28.
		<p>선배가 들려주는 사회 스토리 강연자: 박종욱 선배님 (한국언어문화전공 11학번)</p> <p>설문조사진행(사전조사), 홍보 포스터 제작, 사회, 오프라인 현장 스텝 지원</p>
14차	 <p>제목 : "없었는데, 있었습니다."</p> <p>강연 : 홍광선 선배님 (한국언어문화전공 02학번)</p>	2023.6. 2.
		<p>없었는데, 있었습니다 강연자: 홍광선 선배님 (한국언어문화전공 02학번)</p> <p>설문조사진행(사전조사), 홍보 포스터 제작, 사회, 오프라인 현장 스텝 지원</p>

특강

번호	포스터	활동 내역
5차	 <p>특강 : 튀르키예지역 한국학 현황과 비전</p> <p>강연자 : 정은경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학연구소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학부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학부 학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학부 학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학부 학장</p> <p>강연 개요 1. 튀르키예지역 한국학의 현황 2. 튀르키예지역 한국학의 전망 3.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학부 소개 및 활동 4.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학부 소개 및 활동</p> <p>강연 발표 및 후기 ▶ 주최 : 튀르키예문화유산청 ▶ 후원 : 2023. 5.26. (토) 17:00-18:00(현지시간) / 17:00-18:00(한국시간) ▶ 강연 장소 : 튀르키예 이스탄불대학교 / 이스탄불 문화회관 ▶ 강연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KpYmKjZkYj0 ▶ 행사 후원 : 한국문화재단 / 한국문화재단 ▶ YouTube 스트리밍 링크 정보 : https://www.youtube.com/watch?v=KpYmKjZkYj0 ▶ 사진 촬영 : 김민준 / 최민준</p>	<p>2023.5. 26.</p> <p>튀르키예지역한국학 현황과 비전 강연자: 정은경 교수님(이스탄불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어문학과 교수 / 이스탄불 세종학당장)</p> <p>홍보 포스터 제작, 사회, 오프라인 행사 스텝 지원</p>
	6차	 <p>특강 : 폴란드의 한국학 현황 및 비전</p> <p>강연자 : 이해성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학부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학부 학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학부 학장</p> <p>강연 개요 1. 폴란드에서의 한국학 현황 2. 폴란드에서의 한국학 전망 3.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학부 소개 및 활동 4.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학부 소개 및 활동</p> <p>강연 발표 및 후기 ▶ 주최 : 폴란드문화유산청 ▶ 후원 : 2023. 11.15. (토) 17:00-18:00(현지시간) / 17:00-18:00(한국시간) ▶ 강연 장소 : 폴란드 크라쿠프대학교 / 크라쿠프 문화회관 ▶ 강연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KpYmKjZkYj0 ▶ 행사 후원 : 한국문화재단 / 한국문화재단 ▶ YouTube 스트리밍 링크 정보 : https://www.youtube.com/watch?v=KpYmKjZkYj0 ▶ 사진 촬영 : 김민준 / 최민준</p>

그 외 활동

활동명	사진	활동 내역
유튜브 구독 이벤트 진행		2023.9. 12. ~ 9. 18.
		<p>'상명대학교한국어문화전공TV'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학우들에게 수羹이 띠부쌀 과 간식꾸러미를배포하는 이벤트</p>
		<p>이벤트 구상, 띠부쌀도안 주문, 홍보 포스터 제작, 이벤트 진행 및 배포</p>
2023년상반기 한국어문화전공소식지(도담도담)2호 발간		2023.9. 14.
		<p>한 학기 동안 전공에서 시행된 행사 기록과 재학생들의 활동 모습, 그리고 졸업생들의 인터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공 소식지 '도담도담' 발간</p>
		<p>자료 조사 및 구성, 인터뷰, 소식지 제작</p>

2023 우수과제작 소개

한국문화 관련 Youtube 채널 소개하기

한국언어문화전공 202320166 박서희

1. 채널 소개: 'Imagine Your Korea'

채널 'Imagine Your Korea'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로, 2014년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보인 브랜드 'Imagine your Korea(상상하세요, 당신만의 대한민국)'의 뜻을 담아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채널이다. 음악, 드라마 및 영화를 비롯하여 자연환경과 전통적 역사 및 정보기술(IT) 등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관광객이 직접 상상하고 발견·체험해 보라는 바람도 담겨있다.

해당 채널을 알게 된 경위는 3년 전 퓨전 국악 그룹인 '이날치 밴드'와 현대무용 그룹인 '엠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만든 'Feel the Rhythm of Korea(한국을 느껴봐)' 시리즈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다. 'Feel the Rhythm of Korea'는 서울, 부산, 전주 등 대한민국 대표 도시의 랜드마크들을 퓨전적인 판소리와 전통 혼합무용을 곁들여 소개하는 홍보 영상으로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오지 못하는 관광객을 위로하며 나중에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제작되었다. 그중 서울편이 우연히 유튜브 광고로 나왔고, 영상에서 이날치 밴드의 노래 '범 내려온다' 속 흥겨운 판소리 가락에 맞춰 색동저고리, 갑옷 등 전통의상을 연상하게 하는 퓨전한복 의상의 댄서들이 춤을 추는 모습에 매료되어 광고를 건너뛰지 않고 끝까지 보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부산, 전주, 목포 등 다양한 한국 도시를 배경으로 만든 다른 시리즈들도 찾아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Imagine Your Korea' 채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 콘텐츠 소개

'Feel the Rhythm of Korea' 시리즈에 있는 서산편이 가장 인상 깊었다. 서산편은 영화 '매드맥스'를 패러디한 '머드맥스'를 주제로, 힙합 음악으로 재해석한 민요 '옹헤야'를 배경으로 경운기를 이끌고 갯벌을 달리는 바지락 부대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정겹고 목가적인 모습이 아니라 웅장하고 박진감이 느껴지는 영화 속 장면같이 연출하였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기존에 1차 산업(농업, 어업, 수렵 등)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부수는 이국적이면서도 향토적인 역설적인 분위기로 영상을 제작하였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WHAT IF [VINCENT VAN GOGH] VISITED KOREA' 영상도 인상 깊었는데, 해당 영상은 AI를 기반으로 반 고흐, 모네, 클림트, 나혜석 등 미술계 거장들의 화풍으로 한국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전국의 관광도시들을 유명 화가들의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도시를 마치 명화처럼 연출하였다는 창의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매력을 새롭게 소개하여 해외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생성형 AI라는 과학 신기술을 통해 단순히 이미지 변형이 아닌 영상으로 구현하였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관광 홍보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여 발전된 홍보 방법을 보여주었으며 바람직한 과학기술 활용의 본보기라고 생각한다.

3. 영상 속 한국문화

해당 채널의 영상 속에는 한국 의식주(衣食住)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다양한 한국문화의 모습이 담겨있다.

'의(衣)'의 부분에서는 한복은 물론이고 해녀복, 구군복, 갑옷, 색동옷 등 한국 의상을 현대식으로 개량한 의상이 나오고, 무엇보다 음식에 진심인 나라인 만큼 식(食) 부분도 뭉티기, 떡볶이, 포장마차, 한정식, 잡채, 칼국수 등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이 알차게 소개되었다. 관광 홍보 영상인 만큼 명소가 빠질 수가 없는데, 불국사, 첨성대, 수원화성, 해동 용궁사와 같은 역사적인 명소는 물론 DDP, 목포항, 감천 문화마을, 부산역, 포항제철소 등 현대적인 명소들도 소개되었다. 그 밖에도 민요, 판소리, 국궁(國弓), 쥐불놀이, 태권도, 줄타기, 강강술래, 제기차기 등 전통적인 문화와 노래방, 한강 산책, 야경 등 현대의 놀거리 등 다양한 한국 문화가 등장한다.

4. 채널의 의의 및 활용 방법

채널 'Imagine Your Korea'는 한국문화를 단순히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느낌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틀을 타파하는 획기적인 연출을 보여주었다. BTS, 원슈타인, 이날치 밴드 등 최근 인기 가수들과 협업하거나 매드맥스, 오징어게임, 킹덤 등을 패러디한 콘텐츠를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 역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채널의 영상들은 연예인 중심으로만 연출하거나 유명 관광명소나 비빔밥이나 김치, 한복 등 한국을 홍보할 때 통속적으로 사용되는 상징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관광객이나 스님, 농업·자영업 종사자 등 일상생활 속 쉽게 만날 수 있는 인물들을 위주로 등장시키거나 손꼽히는 관광명소에 연연하지 않고 영상의 재미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하고, 판소리나 전통시장, 노래방 등 새로운 상징을 사용하여 한국문화와 도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 우리 일상에 녹아져 있는 '한국의 멋'을 더욱 잘 살려주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오랜 시간 축적된 전통과 미래를 향해 발전하는 현대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공백과 이질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였다.

문화는 보존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며 때로는 시대와 맞지 않아 사라지기도 하면서, 조상들로부터 오늘날까지 전승되었다. 하지만 문화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자국 안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벗어나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함께 공유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문화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다면, 색다른 시각과 해석을 배울 수 있고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견고함을 인정받아 우리 문화를 지키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그리고 채널 'Imagine Your Korea'가 우리나라의 문화와 세계인들이 소통하고 연결되는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한국의 문화를 새롭고 창의적인 시선에서 전통의 가치와 현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가 더욱 제작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문화가 존재할 때 문화를 홍보하고 발전시키고 전승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한국의 문화와 자연 관광자원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 그 수단으로서 채널 'Imagine Your Korea'

의 기획력과 참신한 구상력을 활용한다면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다.

5. 느낀 점

중간 과제를 하면서 본인 역시 한국문화와 관련된 전공자로서 전공 수업과 연계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이자 문화자원인 영토와 문화를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다. 또한 조사하면서 찾아본 채널 'Imagine Your Korea'의 영상들과 기획안, 홈페이지 등을 보면서 한국관광공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에 공감하였고 이 기업을 미래의 목표로 하고 싶다고 생각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몽중다과', '점통' 채널로 얻을 수 있는 한국 음식 문화와 활용방법

한국언어문화전공 202320161 김은서

목차

1. 서론
2. 콘텐츠 구성
3. 얻을 수 있는 내용
 - 3.1. 한국 전통문화
 - 3.2. 한국문화 전반
4. 활용방법
5. 결론

1. 서론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미디어는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곳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대표적인 영상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는 현재 대중 문화의 선두주자로 자리잡고 있다. 유튜브 '몽중다과'는 음식 모형을 제작하는 영상을 주 콘텐츠로 올리는 채널로 구독자는 61.8만명, 대부분의 영상이 조회수 50만을 가볍게 넘기는 인기 크리에이터이다. '점통'은 음식 모형을 요리, 먹방하는 연출을 하는 채널로 구독자는 약 6만명, 일반 영상은 조회수가 1천~1만 사이이지만, Shorts영상은 최고 642만회의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듯 '모형 음식 만들기 영상'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알게 된 경위 또한 알고리즘의 영향이 크다. 이범준, 정진이는 유튜브의 활용이 증가함과 경험과 정보를 영상으로 전달받는 상황이 보편화되면서, 음식관광의 경우에는 시청자와 잠재적 관광객의 요구까지 충족시키기 위한 영상 콘텐츠가 생산되고, 또한 온오프라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¹⁾ 따라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에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직접적인 경험을 유도하는 음식 콘텐츠 채널 두 개를 선정하게 되었다.

2. 콘텐츠 구성

몽중다과의 기본적인 영상 구성은 클레이, 레진 등의 해당 영상에서 사용하는 재료를 소개하며 시작된다. 모형을 제작하는 과정이 가장 길며, 나레이션과 자막이 제공된다. 영상의 종류로는 유행하는 음식, 또는 그 날 사용하는 재료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음식, 시청자들의 요청&광고 영상이나 가끔 음식이 아닌 것들도 제작한다.

점통의 기본적인 영상 구성은 식재료 모형부터 시작하여 요리하는 상황, 먹는 상황까지 연출하지만, 나레이션과 자막은 없는 영상도 많다. 영상의 종류는 유행하는 음식부터 소박하고 일상적인 '집밥'느낌을 주는 음식들이 있다. Shorts 영상은 기존 영상에서 만들었던 과정

1) 이범준·정진이, 「유튜브 음식관광 콘텐츠의 정보특성이 지각된 정보 유용성과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추구성향의 조절효과」, 『호텔경영학연구』32권3호,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2023, 20쪽.

을 배속하거나 짧게 생략하고 구성을 좀 더 단출하게 줄여서 업로드한다.

3. 얻을 수 있는 내용

3.1. 한국 전통문화

몽중다과의 영상 중 [\[토이쿠키의 한계를 찾아라\]](#) 라는 영상은 시중에서 파는 토이쿠키 반죽으로 한국 전통 다과 모형을 만드는 영상이다. 3분대에서는 미니 약과 모형을 만들면서, '모약과'는 네모난 모양으로 패스츄리처럼 반죽을 겹겹이 쌓아 만드는 약과라고 자막과 함께 설명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들도 잘 몰랐던 약과의 형태를 제시한다. 6분대에는 배배 꼬인 형태의 한과를 매작과라고 알려준다. 또한 [\[분명 당신도 만져봤을 '그 점토' 신분상승 시키기\]](#) 영상에서는 다양한 컬러의 점토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여러 개의 재료를 꽃는 산적 꼬지 모형을 만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상들을 통해 한국의 전통음식, 또한 그 음식에 들어가는 세세한 재료들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모양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음식들의 형태와 재료를 자세하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접할 수 있다. 또한 영어 자막이 포함되어 있어 외국인들에게도 이러한 전통 음식을 홍보, 소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점동의 영상 중 [\[점토로 만든 총각김치 먹방\]](#) 이라는 영상은 총각김치를 담그는 과정, 양념이 든 장독에 알타리무를 넣고 1년간 숙성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점토로 추석음식 요리하기\]](#) 라는 영상으로 송편, 야채전, 동그랑땡 모형을 만들고 세팅하였다. 이외에도 동지 팔죽, 떡국 등을 모형으로 요리하여 먹는 모습까지 아가지기하게 연출하였다.

3.2. 한국문화 전반

몽중다과의 [\[야 오늘 급식 제육\]](#) 이라는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한 급식 메뉴를 선정하여 모형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탕후루, 통대창, 로제떡볶이같은 유행에 민감한 음식들의 모형을 만들어 업로드 함으로써 한국에서 현재 유행하는 음식 문화를 볼 수 있고, '우영우 김밥', '호텔델루나 애프터눈티' 같은 한국 드라마에 등장한 음식을 만들기도 하여 매체와 연결짓기도 하였다. 이하정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주 연령층은 유행에 민감한 10대, 20대로 현재 한국에서 유행하는 언어,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함께 제시할 경우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데, 이에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 매체가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²⁾

점동 역시 불닭쌈, 뿌링클치킨 같은 유행하는 음식의 영상이 업로드 된다. 또한 점동의 특징은 소박한 음식 조합으로, [\[점토로 요리하기 | 돌솥비빔밥, 된장찌개, 둥글레차\]](#) 영상은 비빔밥, 된장찌개, 둥글레차 조합의 각각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집밥 주제의 두부조림, 장조림, 콩나물국을 함께 만들기도 했으며 소곱창, 비빔면 조합 등 다양한 영상이 있다.

2) 이하정,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언어문화 교육 방안 : 현지 베트남 학습자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19쪽.

4. 활용방법

몽중다과는 음식보다는 만들기라는 주제에 좀 더 치우쳐져 있어 음식에 대한 경험을 유발한다 하여도 광고가 아닌 이상 만들고 있는 음식 자체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편이다. 또한 점통 역시 요리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제공하긴 하지만, 만드는 상황에 집중하여 자막과 나레이션의 부재로 인해 음식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특히 케이크 등의 일상적인 음식보다 전통문화일수록 소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콘텐츠를 활용하면서 전통문화를 좀 더 깊이 있게 소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식의 설명과 그에 대한 문화 덧붙이기를 제시하는 바이다. 예를 들어 떡국은 설날 (혹은 새해 첫날)에 먹는 음식으로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먹는다'는 등의 말이 있다는 방식으로 나레이션이나 자막을 추가하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한 두 문장의 설명만 추가해도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가 훨씬 풍부해질 수 있다.

5. 결론

몽중다과와 점통은 현재 유행하는 음식 모형 만들기 콘텐츠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유튜브라는 영상 플랫폼의 활용으로 한국에 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음식 설명은 영상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부가적인 요소에 불과할 뿐 실제 영상은 제작에 치우쳐져 있어 좀 더 깊은 설명이 부재하다는 점이 이 글에서 찾은 두 채널의 결점이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시청층을 고려하여 음식에 대한 설명 혹은 문화적인 설명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아기자기한 영상과 더불어 전통문화에 대한 소개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임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이범준·정진이, 「유튜브 음식관광 콘텐츠의 정보특성이 지각된 정보 유용성과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추구성향의 조절효과」, 『호텔경영학연구』32권3호,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2023, 17-34쪽.

이하정, 「유튜브를 활용한 한국어문화 교육 방안 : 현지 베트남 학습자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백승은, [랜선인싸] 클레이와 점토로 빛는 '꿈속의 음식'...유튜버 '몽중다과', 디지털데일리, 2022.02.20,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2021912185296194>>

한국 전통문화 유튜브 채널 소개

채널명 : 문화유산채널 [K- HERITAGE.TV]

주소 : <https://www.youtube.com/@koreanheritage>

한국언어문화전공 202320179 이예림

내가 선택한 한국의 전통문화 유튜브 채널은 '문화유산채널 [K- HERITAGE.TV]'이다. 이 채널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을만한 것을 찾아보다가 '[K-ASMR] 국가무형문화재 제87호 명주 짜기'라는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무형문화재란 역사적인 측면에서나 예술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큰 무형의 문화로써 말 그대로 물질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무형'이기 때문에 주로 해당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 무형문화재의 대상으로 지정된다.¹⁾ '명주 짜기'가 포함되어 있는 해당 채널의 콘텐츠 카테고리에서는 먹을 만드는 과정인 '먹장'의 소리나 김치를 담그는 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인 제주민요의 소리 등 한국의 무형 문화나 물질문화를 청각적으로 체험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ASMR이란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자율 감각 쾌락 반응)의 약자로 강미정에 따르면 ASMR을 통하여 감각적이거나 인지적인 자극들에 반응하게 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쾌감을 얻을 수 있다.²⁾ 집단주의 성향이 점차 사라지고 개인주의화되어가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안전한 공간에서의 확실한 만족감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먹방'과 같은 대리만족 콘텐츠 혹은 'ASMR'과 같이 심리적 안정감을 선사하는 콘텐츠들이 유튜브 영상 매체에서 주를 이루게 되었다. 문화유산채널은 사회 구성원의 기호 변화에 맞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 매체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켜준 것이다. 해당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는 내가 이 채널을 선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란 디지털 세상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이용하고, 탐색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유산채널에서는 이 능력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최근의 영상 매체 소비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생산해냈다는 것이 돋보였다. 엄혜미의 연구에 의하면 디지털 콘텐츠의 보편화가 디지털 공간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분석하게 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증가시켰고 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은 개인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 전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³⁾ 영상을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문화유산채널 영상 생산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인식하고 그것을 본인에게도 적용하고자 한다면 디지털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과 디지털 세계는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채널 명인 '문화유산채널 [K- HERITAGE.TV]'에서부터 유추할 수 있듯이 해당 채널은 본래 ASMR을 주 콘텐츠로 하여 운영되는 채널이 아니다. 급속도로 이루어진 한국의 산업화와 도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무형문화재.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27803&searchKeywordTo=3

2) 강미정, 조창환, 육구 충족 영상 콘텐츠(브이로그/ASMR/먹방)이용 동기, 수용자 특성, 시청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호, 한국콘텐츠학회, 2020, 76쪽.

3) 엄혜미-강소라, 디지털 문화에서 개인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화산업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문화산업학회, 2023, 188~189쪽.

시화는 한국 전통문화들의 소멸과 축소를 야기했다. 해당 채널이 제공하는 영상의 목적은 한국 문화의 소멸이나 축소를 억제하기 위해 사라지고 있는 문화들을 우리의 삶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활용해 영상 매체로 제작함으로써 디지털 공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끊임없이 문화가 노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유산채널의 재생 목록 카테고리에 접속하면 수많은 영상 콘텐츠들이 60여 개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국가무형문화재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천연기념물, 자연유산, 문화유산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면에서의 한국 문화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카테고리 '[문화유산 미스터리(Mystery X History)]'에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의문들을 해결하는 영상들이 포함되어 있다. 경주 월성에서 발견된 인골 27구의 정체, 신라 사람들이 목격했던 팽권의 정체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미스터리한 주제들을 흥미롭게 표현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경주 월성에서 발견된 27구의 인골은 월성 건설 과정에서 이루어진 인신 공양의 희생자들이었고, 신라 사람들이 목격했었다는 팽권은 단지 얼굴이 새겨져 있던 의례 관련 토기였다는 사실을 우리 중 그 누가 알고 있었겠는가? 문화유산채널은 우리가 살면서 쉽게 알 수 없는 문화 정보들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문화유산채널은 영어 자막을 사용하여 한국에 관심이 있거나 한국에 방문할 예정인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약 76.4%가 서울에 방문한다고 했다.⁴⁾ 채널의 영상 제작자들은 이러한 결과들을 참고하여 서울에 위치한 경복궁과, 과거 경복궁에서 맛볼 수 있었던 궁중병과를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영상에 대한 외국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 자막을 사용했다. 이처럼 문화유산채널의 콘텐츠들은 성별, 나이, 국적에 관련 없이 누구나 한국 문화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그렇다면 문화유산채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한국 역사 교육 시간에 문화유산채널의 영상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말해보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 외 시간에 자발적으로 학문적인 영상을 찾아보지 않는다. 또한 강란숙에 따르면 한국 문화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은 수업 과정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더 많은 흥미를 가진다.⁵⁾ 이 두 가지가 시사하는 바는 교육 시에 사용되는 학문적 영상이 평소에 학문적 자료를 찾아보지 않는 학생들에게 더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 교육 과정에서 영상, 사진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더 기억에 남게 학습시킴으로써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끌어낼 수 있다.

'팁 문화'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미국이나 유럽의 가게에서는 의무와 가깝게 정착한 문화 중 하나로써 가게에 방문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직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이 문화는 조그마한 선의에서 시작되었지만, 반 의무적인 문화가 되었을 때는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곤 했다.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팁 문화'가 한국의 몇몇 가게에서도 도입되고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나는 이 양상이 과도한 사대주의 사상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체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른 나라

4)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조사, 2019

<https://kto.visitkorea.or.kr/viewer/view.kto?id=73343&type=bd>

5) 강란숙, 한국 문화교육의 자료로서 아리랑 TV 영상 자료 활용에 대한 외국인 학습자들의 반응 조사 연구 - 해외 한국학 교육 현장(벨기에)의 수업 사례 제시, 한국언어문화학 제13권 제3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18쪽.

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타국의 문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동시에 의식적으로 우리의 문화를 보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문화유산채널'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유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해당 채널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나아가 외국인들에게까지 홍보된다면 한국은 문화적으로 더 크고 유의미한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란숙, 한국 문화 교육의 자료로서 아리랑 TV 영상 자료 활용에 대한 외국인 학습자들의 반응 조사 연구 - 해외 한국학 교육 현장(벨기에)의 수업 사례 제시, 한국언어문화학 제13권 제3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1~28쪽.

강미정, 조창환 욕구 충족 영상 콘텐츠(브이로그/ASMR/먹방)이용 동기, 수용자 특성, 시청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1호, 2020, 73-98쪽.

엄혜미·강소라, 디지털 문화에서 개인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엄혜미, 강소라, 한국문화산업학회, 한국문화산업연구 제 23권 제 3호, 2023, 181~192쪽.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무형문화재,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27803&searchKeywordTo=3

문화체육관광부, 외래 관광객 조사, 2019.

<https://kto.visitkorea.or.kr/viewer/view.kto?id=73343&type=bd>

2023 단풍 백일장 수상작

2023 단풍 백일장 수상작

어두운 밤 계단에 서서

202020149 강고은

여느 때와 같이 밥줄을 위태위태 이어가고
계단 위에 선다.

나의 휴식처를 찾아가는 길이지만
어두운 밤 계단을 내려가기 두렵다.

내가 선택해서 올라온 길이지만
일정한 보폭을 내딛어 천천히
추락하기 쉽지 않다.

용기내어 주위를 둘러본 순간
청량하게 우는 벌레 소리

애써 나를 위로한다.
다리 하나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
한 발 한 발 검은 땅을 바라보며
내려앉는다.

오늘도 무사히 발목을 삐끗하지 않고
안착했다.

후련한 마음을 벗 삼아
오늘도 나의 동굴로 향한다.

추억 나무

202220176 이상화

귀에 박히는 트럭 소리
웅성이는 사람들
쿵 하는 소리를 내며 자리 잡는 박스들
그곳에는 떠나는 이가 있습니다.

쉬이 떨어지지 않는 걸음
무엇이 그를 잡고 있을까

남아 힘겨워하는 가구,
어딘가 고장 난 건지 깜빡이는 전구,
손, 발처럼 몸에 익은 방,
얼룩진 손수건

그곳엔 시간이 있습니다.

빨간 단풍을 뽐내며 마당 한편에 자리 잡은 나무
그런 나무 옆에
녹슨 삽을 부여잡고
땅을 파는 이가 있습니다.

텅 빈 방에 공허함이 느껴지고
그의 추억을, 삶을, 시간을 담은 트럭이 떠나고
남겨진 이와 단풍나무, 구덩이가 있습니다.

부러진 가구 손잡이, 망가진 전구, 뜯긴 벽지, 얼룩진 손수건을
나무 옆 구덩이에 소중히 넣고 흙을 덮어줍니다.
그 위로 한 방울... 두 방울... 눈물을 흘려줍니다.

구덩이 위로 나무가 자라길
그가 잊고 있던 그리움 시간들이 자라
돌아올 그날 나무에
빨간 단풍처럼 본인을 뽐내길 기도하며

이곳에 처음 온 날
단풍나무를 심은 날
그 해, 그달, 그날, 그 시간, 그 순간의
그 시간처럼

새하얀 눈이 세상을 뒤덮은
그곳, 그 시간에는
단풍을 모두 잃고 앙상한 가지를 뽐내는 나무와 구덩이와
돌아온 이가 있습니다.

계단 벌레

201920162 김정원

기나긴 밤은 없었다.
해가 나리고 달이 삭아도
밤이 밝혔고 별이 빛났다.
세상은 항상 그랬다.

그림자를 기어다니며
찰나를 기워먹던 내가
천한 몸짓을 그르친 것은
비로소 하늘을 올려다보았기에

오를 곳이 생기면
누구든 꿈을 꿀 생각이 들게 된다.
계단이 정말 너무한 것은
오르다 멈출 수 없는 것이다.

괴성

202020158 김지윤

차오르는 달에 비친 태양
그림자를 비추는 높은 빌딩

낮게 자란 풀 위에 눕는 낭만을
가려운 고통에 눈돌려 보내는 무난한 하루

녹조 가득한 강 아래에 고인 기억이
얼어붙은 수면 아래에서 돌아가도
보내주면 돌아오는 그림자
간직하면 고이는 응덩이에 어느새

곰팡이가 침범한 어리석은 뇌에
불로 지진 지우개로 과거를 태워도
시침만 멈춘 기이한 궤종시계는 11과 12사이에 갇혀
빠꾸기는 마중 나올 생각하질 않고

불타는 과거에 사로잡힌 시간이
겨울을 들여다봐

가로등에 비친 그림자
침묵하는 달

달의 행복

202020172 정윤지

달이 웃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의 입이 커진다.
또 시간이 지나면 달의 입이 작아진다.
오늘은 웃는 걸까 우는 걸까?

계단을 오른다.
계단을 오르면서 나는 웃는다.
계단을 내려오면 나는 운다.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오늘 또 성장한다.

달도 웃다가 울고
나도 웃다가 운다.
모두가 웃다가 울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한다.

행복은 도돌이표다.
왔다가도 돌아가고
없다가도 생긴다.
달의 행복도 도돌이표인가 보다.

달

202320188 최유빈

저 하늘 떠오른 달을 당신도 보고 있을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것들을 비추는 이 빛을 당신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 달이 당신이 있는 곳까지 닿는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얻는 나입니다. 물밑듯 차오르는 그리움은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것이니 부디 저 달이 내 마음을 전해주길. 당신이 나를 떠올리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주길. 정제되지 않은 날 것의 감정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난 감히 당신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겠습니다. 밀어 차는 울먹임이 결국 터질 땐 당신이 부디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줬으면 합니다.

달에 시선을 빼앗겨 주목받지 못하는 별을 바라봐 주던 당신의 따스함을 기억합니다. 별을 보면 당신의 처지와 닮았다며 하나둘 눈에 담던 당신을 나는 나의 눈에 담았습니다. 당신은 아십니까. 달이 모두의 주목을 받는다면 별은 길을 인도해 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별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장 작은 것에도 애정을 담을 수 있는 당신은 자라고 자라 가장 높은 곳까지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 뜬 달과 별이 나를 원하길 오늘도 간절히 빌어봅니다.

2023 김동욱 장학금 프로젝트

김동욱 장학금 프로젝트

개요

전공 교환학생(베트남)과의 문화교류 활동일지 작성 경험 공유

-1 : 4 로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방식으로 언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화를 서로 배우고 알려주며 체험하는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목적

서로 알고 지내는 학우들끼리 활동을 진행하여 어렵지 않게 활동을 진행 및 조정해 나갈 수 있고 한국과 베트남과의 언어문화교류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효과와 상호 간의 언어 및 문화교류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살면서 적응해야 했던 베트남 학우에게 자국에 대해 일깨워줄 수 있는 시간과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서로 언어와 문화를 교류하면서 서로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실행 일정

- 1차 한국 신조어 및 베트남 신조어 비교 및 대조, 토론
- 2차 한국 노래_아로하 감상 및 토론
- 3차 베트남 노래_see tinh 감상 및 토론
- 4차 한국과 베트남의 전래동화 비교

새결 유관순 열사 알아가기

프로젝트 개요 및 목적

- 천안 병천면에 위치한 유관순열사 유적지에 방문하고, 유적지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브이로그, 릴스,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등을 제작 후 업로드한다.
- 비교적 서울에 위치한 유적지나, 잘 알려진 여타 유적지에 비해 관심도가 적은 '유관순 열사의 유적지'에 방문하여 젊은 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세대가 유적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꼭 기억해야만 하는 우리의 역사·문화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이다.

프로젝트 실행 일정 및 내용 요약

- 4월: 유관순열사 및 유관순열사유적지 사전조사 및 브이로그 콘티계획
- 5월: 유관순열사유적지 방문+ 브이로그 및 사진촬영
- 6월: 브이로그 제작
- 7월: 카드뉴스 제작(영문판도 함께 제작), 결과 보고서 작성



유관순 열사 기념관 100주년 기념 2023년 1월 7일 개관식
 유관순 열사 기념관 개관식 모습 (가운데) 유관순 열사 기념관 개관식 모습 (가운데) 유관순 열사 기념관 개관식 모습 (가운데)
 유관순 열사 기념관 개관식 모습 (가운데) 유관순 열사 기념관 개관식 모습 (가운데) 유관순 열사 기념관 개관식 모습 (가운데)

위대한 불꽃 유관순

유관순(1902.12.16-1920.9.23)
1902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다. 1919년 4월 1일, 고향에서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후에도 1920년 옥중에서 3.1운동 1주년 기념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의 상징으로서 국민의 애국심 함양과 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드높인 공로로 2019년 3월 1일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받았다.



유관순열사 시적지

1919년 4월 1일,천안 아우내 장려는 만세의 함성으로 가득했다. 중국의 자주독립을 향한 6천여 군중의 뜨거운 의침이었다.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은 호서 지방 최남의 만세운동으로 유관순 열사는 군중의 선두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유관순열사시적지는 유관순 열사와아우내 독립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곳이다. 추모각과 기념관, 생가, 봉화지 등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통해 100년 전 그날의 함성을 느낄 수 있다



봉화탑

아우내만세운동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봉화를 올린 곳이다.



추모각

유관순 열사를 추모하기 위한 곳으로 위패와 영정을 봉안했다.



순국자 추모각

아우내 만세운동에서 순국한 선열의 위패를 봉안했다.

유관순열사가념관 전시안내
관람동선

- 01 위대한 불꽃 유관순
* 유관순 열사 생가
- 02 불꽃, 어머니를 위하여
* 유관순 열사 생가
- 03 작은 불씨, 희망을 키우다
* 유관순 열사 생가
- 04 유관순, 거리의 불꽃이 되다
*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관
- 05 거리의 불꽃, 밤이 되다
* 유관순 열사 생가
- 06 희망의 밤, 마음에 새기다
* 유관순 열사 생가



유관순열사가념관 행사안내

아우내봉화제, 추모제



아우내봉화제

3.1운동과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고 배우며, 단합의 결속과 계승·발전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기념행사를 28일 당일과 29일 2일간
* 행사일차: 4.28.09.00~10.00
* 장소: 유관순열사가념관광장, 아우내 장터광장



추모제

대한민국 88년 국군의 태성인 04월 28일(수)에 유관순 열사 추모제를 실시하는 등 유관순 열사 추모제를 주관한다.
* 행사일차: 4.28.09.00~10.00
* 장소: 유관순열사가념관

위대한 불꽃, 유관순

우리는 한국인으로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고,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유관순 열사의 국민주의 정신과 독립에 대한 열정적인 용기를 배우며, 미래 세대에게는 이러한 가치를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유관순 열사를 기억합시다.



앞새푸른누리달에 수원을가용인

수원&용인 1박2일 관광 가이드북

프로젝트 개요 및 목적

대한민국에서 관광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서울에서 벗어나, 서울 인근 지역에도 대한민국의 여러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 '수원'과 '용인' 지역을 선정하였다. 특히 수원은 대한민국의 세계 문화 유산 중 하나인 수원화성과 k-드라마 촬영지를 중심으로 두어 소개를 하고, 용인은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를 관람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소개를 진행하였다. 2023년 5월 22일 ~ 5월 24일 상명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 민속촌에서 체험해 보고 싶은 전통 문화'와 'K-드라마 인식 및 선호도' 두 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소 및 활동을 결정하였다. 한국 민속촌에서 가장 체험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는 추억 배달과 한지꽃 만들기, 그리고 자개 거울 만들기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K-드라마 관련 설문에서 언급된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리고 '그해 우리는'의 시청 유무가 비교적 명확했으며, 시청 후, 그곳에 직접 방문해 보고 싶다는 의견또한 명확하였다. 외국인의 대한민국 관광지 선호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장소를 선정하고, 1박 2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계획하였다.

1일차 수원



2일차 용인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느낀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간단한 소감으로 정리하였다.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 한 곳을 선정하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택할 텐데, 우리는 서울에서 벗어나 외국인들에게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수원과 용인을 택했다. 간접적으로 체험을 한 것이 아닌, 우리가 선정한 장소에 직접 방문을 하여 하나하나 체험해 본 것이 정말 의미있었던 것 같다. 전통,민속 같은 단어를 떠올리면 재미없고 진부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생각났는데 실제로 민속촌을 방문하고 체험을 해 보며 한국의 전통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에서 그 눈높이에 맞춰 바라보고 코스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색달랐고 수원과 용인의 맛집과 볼거리 등을 즐겨 본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가이드북을 만들어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활동 같다.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될 팸플릿 제작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 및 장소들을 직접 관람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던 시간이었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흥미있었던 곳을 떠올리라 한다면 딱 한 곳이 아닌, 각 개인이 본인이 가장 흥미롭게 느꼈던 장소를 이야기하며 다양한 지역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더 힘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방문했던 수원과 용인을 제외하고도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우리가 그 많은 곳들을 전부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방문할 수 있는 많은 곳들을 앞으로 더 많이 방문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다.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들도 이 팸플릿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즐거운 관광을 마친 뒤 한국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면 좋겠다.

우리는 20학번과 23학번, 선배와 후배가 만나 한 팀이 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선후배가 한마음으로 모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점이 특히 더 의미있었다. 프로젝트 시행 전에는 서로 알 기회가 없어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였으나,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도움을 받으며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학교 생활에 대해 조언을 주고받으며 지내길 기대할 수 있어 좋았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다시 힘을 모아 함께하고 싶다.

졸업생 대표 소감문

졸업생 대표 소감문

안녕하세요, 20학번 서아연입니다. 졸업생 대표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4년이 지나가버려서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코로나를 직통으로 맞아버린 20학번으로서, 비대면 수업으로 1학년의 첫 단추를 끼웠던 만큼 다른 학번들보다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오래 즐기지 못 해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만약 코로나가 창궐하지 않아 보통의 대학생들처럼 지냈더라면 과연 지금처럼 용기 있게 도전해 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해버린 생활이 그 전 시간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만들어주었고, 또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버려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여실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코로나가 완화되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수록 겁 많았던 제가 조금씩 대범해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새내기'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으니, 고학년 때는 누릴 수 있는 혜택과 도전들을 포기하지 말자고 결심했습니다. 이때의 전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일단 해보자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도전해보며 졸업하시면 좋겠습니다. 곧 졸업할 졸업생 분들도 마찬가지로 사회 속에서 해 나가야 할 선택들과 시도에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같은 학과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부했지만, 정도의 차이나 목표의 방향 따위는 제각기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생 초청 특강을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시고 계신 선배님들을 만나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졸업할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주 다양한 곳에서 종사하며 자신의 능력을 펼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내가 옆에 사람보다 뒤쳐진 게 아닐까 생각하며 자신의 자리를 비관하기보다, 포기하지 않고 임하는 모든 일에 전력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그 노력했던 과정이 여러분의 길을 넓혀주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많이 후회가 없는 일임을 언제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졸업생 대표 소감문

그리고 꼭 졸업 전에 크고 작은 목표들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졸업하기 전 목표가 3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석해보기, 두 번째 성적 4.5 받아보기, 세 번째 자격증 3개 이상 취득하기, 네 번째 동아리나 학생회 등에서 제일 높은 직책 맡아보기였습니다. 저는 이 4가지를 다 실현하고 떠날 수 있게 되어 만족합니다. 목표를 이뤘다는 결과가 오는 고양감도 물론 좋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과정 속 시련이 주는 괴로움을 넘어 피워낸 끈기와 책임감이 절 더 나은 어른으로 성장시켰다는 사실이 더 기뻐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본래 욕심은 많지만 실수투성이인 사람이기 때문에 작년 우리말 가꿈이 회장을 맡았을 당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속으로 내 시대 때 우리말 가꿈이 태평성대를 만들어 보자고도 욕심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수라도 할까 전전긍긍해하는 자신감 없는 저 자신이 자꾸 고개를 불쑥불쑥 쳐들고 올라왔습니다. 불안을 누르기 위해서는 세심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투두리스트를 꼼꼼히 적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해보는 일이나 자신 없는 일들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부딪혀 나갔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꼼꼼히, 그리고 다양하게 일을 해나가니 점차 자신감이 높아졌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인상을 만들어 주위 사람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도 꼭 목표를 정하고 이뤄나가는 노력을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4월의 소나기는 5월의 꽃을 피운다는 외국 속담이 있습니다. 연약한 꽃망울이 세찬 소나기와 바람을 견뎌내고 결국 탐스러운 꽃을 피워내듯, 여러분들도 대학생활 동안의 난관을 거름삼아 활짝 피어나시길 고대하겠습니다.

대학교라는 곳에서의 생활은 마침표를 찍게 되었지만, 이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과 같으니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웃으며 작별하고 싶습니다. 열정적인 수업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들과 4학년 때까지 붙어 다녀 신기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해준 동기들, 아르바이트 한 번 하지 않고도 풍족한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해주신 부모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한국어언어문화전공생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한울국문 학생회 소감문

부학회장 김미래

안녕하세요! 한국언어문화전공 한울 국문 부학회장 18학번 김미래입니다. 이번 1년 동안 학생회를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교수님들께서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학생회가 진행한 행사를 학우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적인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뿌듯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가 저조했으면 행사 진행에도 차질이 생겼을 텐데 학우분들 덕분에 무사히 학생회가 준비한 행사를 시작하고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회 구성원 모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재미있게 학생회 일을 할 수 있었고 행복했고 즐거웠던 기억들 가지고 올 한 해 마무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회장 윤지, 기획부 승주, 산하, 형경이, 유빈이, 홍보부 정우, 민우, 서연이, 총무부 남훈이, 동찬이, 솔은이 너무너무 고마웠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학우분들, 학생회 모두 올 한 해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부장 이승주

안녕하세요, 한울 국문 기획부장 19학번 이승주입니다. 19년에 학교생활을 시작해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그 후 2년의 휴학 후 올해 복학하게 되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학생회의 일원으로써 일 할 기회가 주어졌고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소감으로나마 우리 학생회 친구들에게 정말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입학식부터 시작해 마지막 행사인 학술제까지 진행하게 되는 날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과정 하나하나가 소중했고 모든 것들을 열심히 준비했기에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태껏 저희가 진행했던 많은 행사가 학우 여러분께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남은 2023년 한국언어문화전공 학우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부원 임산하

안녕하세요. 한울국문 기획부 부원 임산하입니다.

2023년 올 한 해 한울국문 학생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학생회로서 한국언어문화전공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우리 학과에 더 애정을 가질 수 있었던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학생회를 통해 학과 선후배들과 안면을 트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다양한 행사에 함께하며 더 돈독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새롭게 느낀 감정들을 포함해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가며 많은 것들을 배웠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게 해 준 한울국문 학생회분들께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했던 부원이었지만 뜻 깊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부원 채형경

안녕하세요, 한울 국문 기획부원 20학번 채형경입니다. 학생회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날씨가 쌀쌀해지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마무리를 할 시기가 되었다니 아직은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마지막 학년을 한울 국문 학생회에서 보내게 되면서 새로운 선후배님, 동기 분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울 국문 학생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해오름식 행사를 시작으로 짹선배 · 짹후배 행사, 월드 빌리지, 학술답사 등 학생회에서 했던 여러 행사들과 함께 교수님들, 그리고 많은 한국언어문화전공 학우 여러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희 한울 국문이 1년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흡한 점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과 행사에 항상 관심 가지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부원 최유빈

안녕하세요. 한울국문 기획부원 23학번 최유빈입니다. 첫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하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2023년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획부원으로서 해오름식, 월드빌리지, 학술답사 등등 학우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이 경험은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저의 소중한 경험이 되어졌습니다.

덕분에 저는 학기 초보다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학우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아직 많이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신 기획부를 비롯한 한울국문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늘 도와준 솔은언니와 서연언니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학생회 활동이 끝난다니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아쉬운 마음도 남지만, 새로운 시작이 다가온다는 설렘도 공존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남은 2023년 즐겁게 보내시고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부장 이정우

안녕하세요. 한울국문 홍보부장 이정우입니다. 학생회 일을 제안받고 고민했던 일이 벌써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간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때 시작했던 일이 다시 겨울이 찾아오니 끝나게 되었네요.

학생회의 첫 활동이던 입학식 날 신입생들을 위한 ot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해오름식까지 1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저희 한국언어문화전공만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학술답사와 단풍 백일장은 저도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즐겼던 행사였기에 크게 기억이 남습니다.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걱정이 가득하게 시작했던 학생회 일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재밌고 뿌듯하다는 감정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활동을 즐기는 학우분들의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감사하다는 감정이 생기며 저도 기쁘게 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홍보부에서 만들었던 게시물들이 학우분들의 학과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2023년도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부원 진민우

안녕하세요. 한울 국문 홍보부원 20학번 진민우입니다.

새내기였던 2020년을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된 캠퍼스 생활 없이 흘러 보내고, 2년의 휴학 후 새내기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복학하였는데요. 행운 처럼 한국언어문화전공 학생회 부원으로서 활동할 기회가 주어졌고, 다양한 학과 행사의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직접 학생회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첫 학교생활이었던 2학년을 멋진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으로 간직할 수 있음에 영광입니다. 비단 학생회 인원들뿐만 아니라 늘 존경하는 한국언어문화전공 선생님들과 함께였기에 보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던 한국언어문화전공 모든 학우분 역시 감사했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늘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누구보다 따뜻한 연말, 행복한 2023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년의 한국언어문화전공, 앞으로의 상명대 한국언어문화전공 화이팅!

홍보부원 배서연

소감을 쓰라 하니 학생회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하던 일부터 떠오릅니다. 이전 학창시절 흔한 학급 임원조차 해본 적 없었던 저는 ‘학생회’라는 타이틀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모집글을 보고 고민하던 날,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단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라는 친구의 말에 솔직히 받은 충동으로 학생회를 신청했습니다.

면접 때 괜히 긴장해서 시키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던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쑥스럽습니다. 운 좋게도 원하던 부서에 합격해 항상 재밌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회 선배들과 동기들에게 감사합니다.

3월 짝 선배 짝 후배 행사부터 11월 학술제까지, 크고 작은 행사들이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활력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덕분에 활력 있는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양한 행사들 속에 제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더욱 뿌듯합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없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는 것, 이 하나만큼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얘기가 들려 오는걸 보면 정말 한 해가 다 가긴 갔나 봅니다.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단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 이 한 마디로 시작한 학생회지만, 올 한 해 학생회로서의 저는 후회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전 제 자신이 기특하고, 2023년 ‘대학생의 나’를 오래도록 추억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울국문 홍보부 22학번 배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부장 김남훈

학생회 1년을 끝마치며...

1년이 쏠살같이 빠르게 흘러가 굉장히 아쉬웠던 한 해였습니다. 복학하고 첫 학생회 활동이기에 서툴렀던 점도 많았고 막다른 길에 막혀 헤매이기도 했던것 같습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뜻깊은 경험도 많이 해 보고 좋은 학우들과 한 해를 같이 동고동락하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도와주었기에 어떠한 일이든 막힘없이 잘 해결했던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웠고 고생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학회장, 부학회장을 비롯해 모든 부장, 부원 여러분들 정말 한 해동안 재미있었고 함께 웃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한울 국문은 막을 내리겠지만 모두 영원히 잊지 않고 좋은 기억 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총무부원 운동찬

안녕하세요, 한울 국문 총무부원 운동찬입니다. 저의 학생회 생활 1년을 평가하면 아쉬움, 보람, 감사라는 세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지나버리면 되돌릴 수 없기에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지난 1년은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에 더욱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학생회에서의 소중한 시간은 큰 보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부원 홍솔은

안녕하세요, 한울국문 총무부 부원 홍솔은 입니다. 입학 하기 전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던 저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학생회에 들어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회에 들어와 동기들과 선배님들 덕분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월드빌리지, 학술답사, 백일장 등 학생회였기 때문에 할 수 있던 활동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회를 통해 많은 전공 학우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학우분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면서도 학생회 활동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도 남는 것 같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하는 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신 선배님들과 유빈이 서연이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올 한해도 이제 끝나가는데 날이 추운 만큼 건강 조심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학과 행사 소개

2023.02.24 한국언어문화전공 OT



2023.03.14 해오름식



2023.03.14 해오름식



2023.03.14 해오름식



2023.03.27 - 03.30 짝선배짝후배



2023.03.27 - 03.30 짝선배짝후배



2023.05.30 - 05.31 월드 빌리지



2023.05.30 - 05.31 월드 빌리지



2023.06.22 - 06.23 학술답사



2023.06.22
- 06.23
학술답사



2023.10.10
백일장



그 외 특강

2023 한 해 마무리 사진



그 외 특강



**제 32회 한울국문 학생회
한국언어문화전공 제26회 얼갈울터**

편집일자	2023. 11. 19.
발행일자	2023. 11. 21.
펴낸이	제 32회 한울국문 학생회
기획	제 32회 한울국문 학생회
편집	제 32회 한울국문 학생회
표지 디자인	제 32회 한울국문 학생회
펴낸곳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글로벌인문학부대학 한국언어문화전공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송백관 E311)
누리집	https://smkorean.smu.ac.kr/smkorean/index.do
전화번호	041-550-5112

학회장 정윤지
부학회장 김미래

기획부장 이승주
기획부원 임산하
기획부원 채형경
기획부원 최유빈

홍보부장 이정우
홍보부원 진민우
홍보부원 배서연

총무부장 김남훈
총무부원 윤동찬
총무부원 홍솔은